진실이 오른다 -밀레 MILLET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4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062)970-0114 061)360-5050

주교 성성 50주년 맞은 윤공희 대주교 ▶2
잘 뚫린 도로가 더 위험…교통사고의 역설 ▶6
목포해경 中어선 불법조업 단속현장 ▶7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9595호 1판 2013년 10월 18일 금요일 (음력 9월 14일)

광주시·전남도 내년 살림 "한숨만 나옵니다"

쓸데는 많고 세수는 줄고…예산편성 고심

복지비 급증·선거 겹쳐 '예산 대란' 걱정도

광주시와 전남도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복지비용 증가 등으로 들어갈 돈은 많고, 지방세 등의 감소로 들어올 돈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정부와의 치열한 예산 전쟁 끝에 개청 이래 첫 '예산 4조원 시대'를 열게 됐지만, 철도와 도로 등 SOC 사업비(특별회계)에 들어가는 돈이 적지 않은데다, 일반회계에서도 지방비 매칭이 필요한 복지예산이 대폭 증가해 살림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모성 예산을 줄이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 신규 사업 억제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는 내년도 국비로 역대 최대규모인 3조1024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 국비 2조5181억보다 5843억원(23.2%)이 늘어난 것이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경우 올해보다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 32.69%보다 7.39% 감소한 1조500억원(25.30%)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광주시의 내년도 총 예산은 4조1500여억원으로 개청 이래 처음으로 4조원 시대를 열 전망이다.

하지만, 광주시의 내년 예산운용은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전체 예산 4조원 중 지방자치단체 기능수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일반 회계는 전년 2조7800여억원 보다 1000억원 정도 증가한 2조9000여억원 정도인데, 증가액 가운데 상당부분이 지방비 매칭(부담)이 필요한 복지 사업비이기 때문이다. 복지비는 평균 지방비 매칭비율이 50%여서, 지방 예산편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광주시는 자체 수입인 지방세 수입이 전국 6대 광역시 중 가장 적다는 점에서, 기초 살림도 넉넉한 편이 아니어서 복지비 추가 부담은 신규 사업 억제 등 자치 행정을 가로막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해야하고, 영·유아 보육비도 증가해 광주시의 경우 올해보다 관련 예산이 4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외에도 시는 내년 지방선거비용으로 225억원을 떠안아야 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올해처럼 단체 보조금을 비롯한 소모성 예산을 10% 안팎씩 줄이는 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또한 신규사업 계획을 신중하게 재검토하는 등 내년 예산안을 짜는데 고심하고 있다. 도의 2014년 국비지원액은 6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47억원이 늘어났으나 지방세 등이 포함되는 일반 회계는 늘기는커녕 1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또, 기초(노령)연금 대상 노인이 올해보다 1만1000명이나 늘면서 지급액도 최대 655억원이 증가한 1200억원을 마련해야할 처지다. 지방선거 비용도 596억원에 이른다.

한편, 시·도는 다음달 11일까지 2014년 예산안을 시·도의회에 제출하고, 12월16일까지 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농업박람회 호박 조형물 '제11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개막을 하루 앞둔 17일 나주시 산포면 전남도농업기술원 전시관에 도내 시·군에서 재배한 호박들로 만들어낸 갖가지 이색 조형물이 전시돼 있다. 농업박람회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열리며, 전남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특산물, 가공제품 등을 전시·판매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 동부권 '소나무 재선충' 확산

감염의심목 작년수준 넘어 방제인력 없어 '발만 동동'

경남 지역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이 여수·순천·광양 등지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재선충이 폭넓게 퍼져 있는 경남과 인접해 있어 재선충이 더욱 빠르게 퍼지고 있지만 방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이들 지역에서는 49본의 소나무가 이미 감염됐다. 9000여본 가량이 감염된 경남에 비해서는 전남지역의 피해가 아직 미비하지만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의심목의 수가 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9월 현재 이 지역의 감염의심목은 2768본으로 이미 지난해 2053본 수준을 넘어섰다.

또 여수·순천 지역은 재선충 최다 발생지인 경남 진주, 사천, 거제, 창원 등지와 가까워 재선충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유입이 우려되기 때문에 방제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방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전남도는 현재 여수·순천·광양 등지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예찰하고 있지만 3만1555ha의 넓은 땅에 방제 인력은 18명뿐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인력을 충원하고 올 긴급장제비 3억원을 추가 확보해 재선충 확산 종합 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선충은 투명한 0.9㎜ 내외의 실 같은 선충으로 소나무·해송·잣나무 등의 양분 이동통로를 막아 고사시킨다. 지난 1988년 부산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급속 확산돼, 2005년 무려 56만6000그루가 감염되는 등 최고조에 달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알림

현지학생들과 수업하며 생생영어 배워요

제7회 겨울방학 뉴질랜드 스쿨링캠프 모집

지난 7월 여름방학기간에 실시된 6회 연수에 참가한 학생들과 현지 학교 친구들.

뉴질랜드 교육부 학교등급에서 만점을 받은 명문 공립 초 중학교에서 현지학생들과 정규수업을 함께 받는 정통영어 어학연수인 '제7회 겨울방학 뉴질랜드 스쿨링캠프'에 글로벌시대 꿈나무들을 초대합니다.

광주일보사는 현지 어학연수 전문교육기관인 한뉴문화교류센터와 공동으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4년 1월 20일부터 2월 16일까지 4주간 뉴질랜드 어학연수를 진행합니다.

7회째 실시되는 이번연수는 새 학기를 시작하는 뉴질랜드 학생들과 현지학교에서 정규수업을 받으면서 체계적인 영어실력을 키우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방과후에는 영어회화향상에 도움이 되는 ESOL과 NEAT를 대비한 그룹 수업등이 진행됩니다.

특히 연수에서는 엄선된 현지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통해 현지문화와 실용영어를 동시에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주최:광주일보사
- 주관:한뉴문화교류센터, KJE&T
- 연수학교:뉴질랜드 오클랜드지역 HOWICK INTERMEDATE SCHOOL등 6개 초중학교
- 연수기간:2014년 1월 20일부터 2월 16일(4주)
- 신청마감:11월 15일까지 선착순 40명
- 연수금액:565만원 (개인용돈 불포함)
- 문 의:062)220-0555, 010-6693-6604

61 광주일보 창사61주년 since 1952 회갑의 해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